



관내 동향

□ 사천시, 항공제조업 살리기 20억 원 긴급 지원

- 사천시는 주력산업인 항공 제조업 기반 유지·육성을 위해 관내 34개 항공제조업체에 총 20억 원을 지원
- 지원에 앞서 사천시는 항공 제조업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항공업체 현장방문, 항공산업 기반유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업체 피해실태를 파악
- 이를 토대로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는 5월 26일 ‘항공 제조업 지원 심의회’를 개최하여, 최대 1억 원의 업체별 지원 규모를 확정
- 황태부 항공산업생존 비상대책위원장은 “항공제조업이 일감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숙련인력 유지와 항공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던 중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사천시가 항공산업 지원에 앞장서 줘 고맙게 생각한다.”고 밝힘
- 송도근 사천시장은 “항공 생태계 보존과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물꼬가 되길 바라며,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항공산업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함

□ 사천시, 항공MRO 사업 지키기에 나섰다

-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사업 중단촉구 -
-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(IAI)과 항공정비 전문기업 (주)샤프테크닉스케이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(MOA)를 체결

- 사천시는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외국회사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항공MRO사업을 직접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**강하게 반발**
- 하영제 국회의원을 비롯한 송도근 사천시장 등은 5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‘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중단’을 촉구
- 송도근 사천시장은 5월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하영제 국회의원, 박정열, 김현철, 황재은 경남도의원, 이삼수 사천시의회의장 및 시의원,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**항공MRO사업 추진 중단을**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짐
- 이어 **경남도의회** 도의원 전체 58명은 6월 2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MRO 사업 시도 중단, MRO 허용 법안 개정 시도 **즉각 철회를 요구**
- 또한 6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하영제, 최형두, 박수영, 권명호 국회의원 4인은 31명의 부·울·경 국민의 힘 의원들을 대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(이하 MRO) 추진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
-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이 단순 부지 제공이 아니라 격납고 및 인프라 등 항공MRO 개조시설 건축 및 임대도 포함돼 있어, **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함을 주장**
- 현행 법률상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항공기 개조사업에 참여해 직접 항공MRO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**▲인천국제공항공사법 ▲한국공항공사법 ▲공항시설법 등에 반하는 법령 위반임을 강조**
-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면 국가핵심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도 인한 혈세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, 걸음마 단계인 항공MRO 정비사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사천지역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

□ **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, 군용기 IFF MRO사업 수주 확보**

-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시스템으로부터 42억 원 규모의 군용기 피아식별장치(IFF) 교체 MRO 사업을 수주했다고 6월 3일 공시
- 피아식별장치 교체사업은 지난 2019년 한화시스템이 방사청과의 계약을 통해 한국군이 운용중인 항공기 17종 540여대에 탑재된 피아식별장비를 '모드(Mode) 4'에서 최신 버전인 '모드 5'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
-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2020년 3개 기종에 대한 초도 업그레이드를 마쳤으며, 이번에 추가적으로 42억 원 규모의 수주 본계약을 체결
- 또한 현재 미국 현지에서 아르테미스 및 다양한 발사체 사업 부문에 참여하는 등 우주 부문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, 방산분야에서 수주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올해 큰 폭의 실적 향상이 기대됨



도내 동향

□ **경남 진주~사천~고성을 잇는 장거리 드론 물류배송 실증 시작**

- 사천시는 고성군·진주시 및 관련 기업체와 경남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난 5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'2021년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'에 2개월간 항공안전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됨
- 경남도컨소시엄은 6월 7일 (주)엔에이치스트럭처(ANH) 본사 회의실에서 2021년 경남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
- 회의에는 경남도, 진주시, 사천시, 고성군, 경남테크노파크, 경남도립 거창대, 39사단, (주)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, (주)MGIT, (주)만물공작소, (주)우진DNF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, 드론실증 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경남도 컨소시엄을 드론팀 경남으로 명명

- 드론팀 경남은 6월부터 11월까지 33번 국도를 기점으로 서부경남의 진주~사천~고성을 잇는 장거리 드론 물류배송 실증과 미래 도심 항공 교통(UAM) 시대를 대비한 비행항로 개척을 시작
- 또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개별 사업도 병행할 예정으로, **진주시**는 관내 기업인 ANH와 진주시 공공배달앱과 연계한 드론배달 서비스와 산업단지 안전 및 환경 감시 시스템 구축을 실증, **사천시**는 (주)만물공작소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 서비스 및 불법주정차 단속 실증을 수행할 계획



국내 동향

□ 드디어 해외여행! 트래블버블 기대에 설레는 여행업계

-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국민에 한해 해외단체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**여행업계가 분주**
- 정부는 지난 6월 9일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**트래블 버블** (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)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
- 트래블 버블이 실현되면 특정 국가를 자가격리 없이 여행가능하며, 현재 트래블 버블 대상 후보 국가로는 싱가포르, 태국, 대만, 괌, 사이판 등이 거론됨
- 이에 여행업계는 관련 여행상품 판매에 속도를 내며 모처럼 활기
- 다만 핵심 수요 계층인 20~30대 젊은층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여행이 활성화는 9~10월 정도는 돼야 할 것

□ “K-UAM 드림팀 뒀다”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 참가

- 서울시가 주최한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, 미래 교통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선도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체험토록 함
- 이날 행사에는 한국형 도심항공모빌리티(UAM) 산업을 주도할 현대차, 한화시스템, LG전자 등 40여개 모빌리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청사진을 제시
- 국내 UAM 산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현대차와 서울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UAM 생태계 구축, UAM 산업 활성화, UAM 이착륙장 비전 수립, 한국형 UAM 로드맵 등을 협력할 계획
- 한화시스템은 연내 미국에 UAM 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계획



해외 동향

□ “항공산업 회복 확산” 에어버스, 항공기 생산 늘린다

-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모델인 ‘단일통로 제트기’ 생산을 대폭 늘릴 계획
-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항공 산업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
- 에어버스는 일단 올해 말까지 단일 통로 기종인 A320 생산량을 현재 월 40대에서 45대로 10% 이상 늘리기로 함
- 2023년 2분기에는 월 64대를 공급 목표치로 설정했으며, 2024 초에는 70대, 2025년에는 75대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힘

-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 관계자는 “해외 여행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도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단거리 여행용으로 사용되는 단일 통로 제트기 시장이 우선 회복세를 주도할 것” 이라고 하며, **항공업계의 재도약을 기대함**

□ 유나이티드 항공, 초음속 비행기 상용화 예고

-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이 미국 항공 우주업체 ‘봄 슈퍼소닉’이 개발 중인 초음속 항공기 ‘오버추어’를 15대 구매
- 오버추어는 최대속도가 마하 1.7이며 이는 뉴욕에서 런던까지 3시간 30분,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도쿄까지는 6시간 만에 이동 가능한 속도
- 오버추어 항공기로 전 세계 500개 노선의 **비행시간을 절반가량으로** 줄일 수 있으며, 약 65~88명의 승객이 탑승 가능
- 봄 슈퍼소닉은 오는 **2025년까지 오버추어의 개발을 완료**하고, 2026년 시범 비행을 시작할 계획이며 2029년부터는 여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



○ 초음속 비행이란?

- 비행기가 음속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로, 이는 고도 6만피트(1만 8300m)에서 시속 1060km보다 더 빨리 비행한다는 것을 의미

○ 오버추어 속도는?

- 일반적인 여객기는 약 시속 900km의 속도로 순항할 수 있지만 오버추어는 마하 1.7(시속 1805km)의 속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

유나이티드의 초음속 여객기 ‘오버추어’ 디지털 모델

작성일	2021. 6. 15.(화)	보고일	2021. 6. 18.(금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오은미(055-831-3470)